

정의의 종

SNU LAW MAGAZINE
VOL. 4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2동 서암관

새로운 시작의 날

1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식 축사

이재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 서울법대 이야기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 사랑의 릴레이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한인섭 교수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형법학이란

정선주 교수 • 더 크게, 더 멀리 보는 민사소송법

조홍식 교수 • 법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이재민 교수 • 여유를 갖고 긴 호흡으로 멀리 가기

16기 양현정, 이동엽 • 16기 원로원(SENATUS) 인터뷰

15기 권혜준 • 체력이 법력, 헬로(Heal-Law) 인터뷰

15기 오예슬 • 합창단(Spero Spera) 공연 준비일지

14기 김인서, 15기 최동익 • 서울법대 문학회 심난 인터뷰

16기 권이혁, 박민찬, 이정민, 이준경, 정인희 • 사법학회 주최 제4회 판례평석 발표대회 우승팀 인터뷰

15기 박성하 • 학내 문제가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15기 박정우 • 신생 학회의 열정 성장기

14 법학전문대학원 소식

16 연구소·센터 소식

19 릴레이 도서 추천

20 기금 안내

SNU Law 캠페인 안내

Next Decade 기금 안내

법학발전재단 및 발전기금 출연현황 2024. 3. 1. — 2024. 8. 31.

예우 안내

정의의 종 40호

발행인. 이재민 원장

편집인. 공두현 학생부원장

기획 및 취재. 김민제 배지에 최승훈 학생기자

제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그간 무더위에 건강하게 지내셨는지요? 이번 여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한 졸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주신 강용현 법대 동창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 여러분들이 서울법대에서 보낸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유례없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그리고 훌륭하게 완주한 여러분들에게 우선, 여러분 하나하나 모두가 무척 자랑스럽고, 수고가 많았다고,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서울법대를 떠나는 날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국에서는 졸업식을 ‘graduation’이라는 단어 대신에 ‘commencement’라고도 표기합니다. 졸업생들에게 오늘은, 인생의 한 매듭을 짓는 날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라는 것이 더욱 큰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떠나 어떤 길을 가든, 여러분이 이곳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밑거름 삼아,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업에 이미 종사하는 분들은 오늘 의 성과와 영광을 마음 깊이 담고 다시 심기일전하여 각자의 직장에서 더욱 정진하여 뜻한 바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었던 가족의 헌신과 지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의 성원과 응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난 수년간 공동의 노력의 시간을 돌이켜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졸업생들은 사회로 진출하여 여러 현업에 나서게 됩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바는 항상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같이 일하고 싶은 법률가는 반드시 실력이 뛰어난 법률가, 법령과 판례를 잘 숙지한 법률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법률가는 협력하는 태도,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동료에 대한 배려심을 함께 갖춘 사람입니다. 단지 지적으로 우수하고 혼자서 일을 잘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사람보다는 함께 일

하고 싶은 이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자신의 직역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고 나아가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졸업생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법대를 떠나게 되더라도 앞으로 ‘꿈을 계속 간직하고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여러 힘든 일들을 많이 마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서울법대에 처음 입학하면서 미래에 대해 가졌던 꿈을 떠올려 보십시오. 입학 당시의 꿈, 아니면 서울법대 재학 중에 더욱 진화된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꺼내 보며 다짐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품은 꿈은 어려운 순간 길잡이별이 되어 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사고하자’는 당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생각보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품은 꿈과 함께 긍정적인 자세로 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조금씩 확실하고, 선명해지며, 즐겁게 변화할 것입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한 명 한 명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울법대는 언제나 여러분의 모교로서 여러분을 성원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지금 서울법대 졸업식장의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많은 사회적 혜택을 받은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공익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역에서 활동하든 서울법대에서의 배움과 깨달음이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다시 우리 사회에 더 크게 갚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학교를 떠나며 품은 높은 뜻을 앞으로 꼭 이루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학교를 잊지 말고 학교 발전을 위해 또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좋은 날입니다. 거듭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8. 2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 재 민

사랑의 릴레이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 법대 74학번 —

김용직 변호사는 서울법대를 나와 198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5년부터 판사로 근무했다. 그는 2001년 8월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공동대표가 됐다. 김 변호사는 다양한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했거나 활약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수십 년간 수많은 공익 활동에 참여했다. 자기소개를 부탁한 기자에게 건넨 그의 첫 마디 역시 ‘공익적 열정’이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활동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에 두루 관여하였고, 지금은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과 태재대학 이사입니다. 장애인들도 예술 분야에 관계되는 경우가 많아 소수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대학 교육의 개혁에 일조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수자 문제에 관심이 많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과 부협회장도 지냈습니다. 변협 인권위원장 활동 당시 장애인인권소위원회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조직화하기도 했어요.”

김 변호사는 민간뿐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다양한 직책들을 맡아왔다. 특히 그는 지난 4월에 대법원장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지명되기도 했다. 법률가로서의 전문성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높은 감수성, 봉사심이 그 배경이다.

“공익 활동들을 이어가려면 상근직을 맡을 수는 없어요. 지금의 공익 활동들만으로도 아주 보람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리는 비상근직이라 맡게 되었어요. 장애인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자 합니다.”

김 변호사는 공익 활동 중 특히 자폐성 장애인 대변에 헌신했다. 그는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 옹호 운동을 해오고 있다. 그는 자폐성 장애인을 대변하고자 2006년에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출범시켰다. 기자에게 발달장애인이 생산한 문구류를 선물하며 그는 요즈음 그가 관심을 둔 분야를 설명했다.

“자폐성 장애인은 특히 근로가 어렵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그들은 소통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장에 관심이 많아요. 직접고용은 물론 연계고용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 고용문제가 더욱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는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장학 사업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11년부터 소화장학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재단은 출범 이후 매년 장학생 70여 명을 선발했고 2019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생도 선발하고 있다. 올해에는 우리 학교 재학생 중 3명도 선발됐다. 재단 출연과 별개로 그는 우리 학교에 2,6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고 싶었어요. 2011년 당시에도 장학금이 400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 최저임금이 6,700원 정도였어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한 700시간 정도를 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300시간 정도를 주는 거겠네요. 학생들이 시간을 아껴서 집중하며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을 지속해서 마련하기 위해 그는 절대로 적지 않은 돈을 쾌척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기부자들에 대한 고마움부터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소수의 분들이 동참하였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의 출연으로 많은 학생이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자 또한 법대 봉사 장학생으로서 지난 3년간 우리 학교와 선배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장학생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길 바라는지 물었다.

“우리 재단 장학생 중 저에게 편지를 쓴 학생이 있었어요. 어려운 형편에 큰 도움을 주신 덕에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와닿게 썼더라고요. 그를 로펌에 추천하였음은 물론입니다. 도움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다시 베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릴레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훈 학생기자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형법학이란



한인섭 교수

한인섭 교수는 형사사법개혁이라는 일생의 과제에 헌신하면서 교육자로서 그의 역할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삶을 살아왔다. 지난 5월 23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토론회와 6월 26일 개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활약하고 교수 연구실로 돌아온 한인섭 교수를 만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법학이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구도해 보았다.

형사사법개혁의 의의와 의제

형사사법은 당사자가 대등하게 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도록 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가운데 작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원칙이 교과서 속에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권력 우위를 가진 국가기관과 부딪히면서 시민을 대변할 학문적인 책무를 실천하는 것이 형사사법개혁이다. 단계적으로 보면, 1987년 이후 권위주의 정권이 남겨 놓은 반민주적 형사입법의 틀을 깨뜨리기 위해 사회안전법, 국가보안법 등을 개폐한 것이 첫 번째 큰 흐름이었고, 다음 단계로는 영장실질심사 제도의 정착과 변호권의 강화를 통해 형사사법에서 인권침해의 결정적인 부분인 무분별한 구속 및 강압적 수사를 쇄신하는 작업이 있었다. 이후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3단계 변화는 심야 수사,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등 수사기관의 인권준중 미비로 이어져 온 관행들을 구체적으로 근절 및 금지하는 데에 집중되어 왔다. 남은 주요 과제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한인섭 교수는 수사기관의 역할 분배를 꼽았다. 그는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지만, 입법 의도의 실현은 미완성임을 강조했다.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한 규모, 수사 이첩 및 범위와 관련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점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

형법학, 실태·정책·법의 트라이앵글로

권력 남용과 입법부작위의 폐해에 맞서 국민 전반의 인권을 신장하고, 강자가 법망에서 빠져나가려 하는 일에 견제구를 거는 것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모든 법조

인의 소임이다. 그러나 실제 로스쿨의 형사법 연구 및 교육에서 학생들이 그 소임을 의식하도록 하는 일은 어렵다. 한인섭 교수는 2023년, 서울법대 교수 생활을 통한 깨달음의 소결로 ‘실태·정책·법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관점에서 형사법 연구·교육에 형사정책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논문을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법률가는 법 해석에 대한 지식을 향상하기 위해 이론과 판례의 답습뿐 아니라 정책적, 입법적 지식을 가져야 하고, 늘 현상과 실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줄 알아야 한다. 좋은 사회관계에 대한 더 넓은 비전과 과학적 탐구력으로 헌법의 빛을 비추어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는 데에 장기적으로 보탬이 되는 신세대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 이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이기도 하다. ‘벽인 줄 알고 밀었더니 문이더라. 모든 제도는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 속에 있다. 문제가 있다면 설득, 토론, 도전, 타협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소수의견을 간과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다. 형법학에서 중요한 것은 10년 뒤, 20년 뒤에 다수의견이 될 단독의견을 발안하는 능력, 결국 인권 문제를 포착하는 감각이다.

형사사법개혁, 나아가 사법개혁은 단기적으로는 좌절과 실망을 끊임없이 겪어 왔다. 하지만 적어도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분명법의 발전은 일어나 왔음을, 한인섭 교수는 오랜 연구 생활을 통해 확신한다. 그가 대국민 토론회 사회자로서 지켜본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성과도 우리 과거사의 정리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1,200쪽에 달하는 종합 보고서는 민주화를 완수하지 못한 다른 나라의 진실 발견에 가치 있는 참고 자료로서의 선례가 될 것이다. 한인섭 교수가 처음 봤을 때는 난공불락으로 보이던 무수한 제도들은 계속 두드려다 보면 결국 깨졌다. 헌법은 항상 인권보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 침해상황은 법률가가 바꿀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기본권은 보장되고야 말 것이라고 힘을 실어 말하는 그의 눈빛이 반짝였다.

법학전문대학원 김민제 학생기자

더 크게, 더 멀리 보는 민사소송법



정 선 주 교 수

정선주 교수는 2007년 서울법대에 부임한 후 20년 가까이 강단에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민사소송법에 한 획을 그어온 정선주 교수를 만나보았다.

민사소송법과의 인연의 시작

정선주 교수와 민사소송법과의 인연은 꽤나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였다. 본래 공법과 사회보장법에 관심이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므로 대신 많이들 어려워하는 민사소송법을 대학원 전공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어떤 교수님의 권유에 도전정신이 생긴 것이 그 시작이었다. 막상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다 보니 명확하고 논리적인 절차법적 특성, 그리고 실제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거시적 관점의 중요성

절차법을 공부하는 유의미한 방법과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및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한 소감에 대한 질문 모두에서 정선주 교수의 거시적 관점을 엿볼 수 있었다. 민사소송법과 같은 절차법은 실체법과 달리 교과서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전반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정선주 교수가 기판력이나 상고와 같은 개념이 앞부분에서 나올 때 그 부분을 찾아보며 학습할 것을 권유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민사소송법적 쟁점은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처럼 일상에서 접하기는 어렵기에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가며 공부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으로서 학술대회를 기획하면서도 거시적인 관점을 견지했다. 한국민사법학회·한국민사소송법학회·한국상사법학회가 2022년부터 공동으로 주최해 온 사법학자대회를 기획하면서 정선주 교수는 여러 법학전공이 한데 모이는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단순히 세션을 나누어 진행하는 것은 각자의 학술 대회를 한 곳에서 개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다. 공통주제를 선정하기가 녹록지 않더라도 발표자가 민법학자라면 토론자는 상법과 민사소송법학자가 되어야 진정한 융합연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거시적인 접근이 큰 호응을 얻어 사법학자대회는 3년간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도 1심 충실화라는 전제를 간과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상고를 제한하면서 정작 사실심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국민의 반대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특정 부분만 파편적으로 건드려서는 진정한 절차법 공부도, 융합연구도, 그리고 제도개선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중재와 소송의 경계, 제도 도입의 경계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민사소송법적 쟁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정선주 교수는 중재의 차별성과 제도 개선 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고유한 특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변호사들이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중재는 재판과 큰 차등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잦다. 중재판정 취소의 소나 승인집행신청을 다루는 판사도 중재절차를 소송과 동일시한 채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중재는 소송과 엄연히 구분되는 범위 바깥의 제도이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의 여러 절차모형을 제시하는 시도가 유의미한 구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교호신문제도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를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 민사소송법과 법률문화의 특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관이 자유심증을 형성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법관이 증인신문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미법의 교호신문을 일방적으로 채택하는 현행법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 또한 변호사윤리를 강화해 문서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해지는 제재를 강화하지 않는 이상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어떤 제도든 전체 법률이나 그 나라 사회문화와의 정합성을 따지지 않은 채로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는 없다.

거시적인 관점은 모든 것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것을 포함한다고 느꼈다. 정선주 교수가 내년 교정을 떠나기 전까지 서울법대의 학생들이 교과서의 앞뒤를 자주 넘나들고, 제도의 이면을 종종 상상하며 앞으로도 그 시각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법학전문대학원 배지에 학생기자

법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조 홍 식 교 수

조홍식 교수는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제16대 회장을 맡고 있다. 조직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2023년부터 한국법학교수회를 이끌고 있는 조홍식 교수를 만나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그 미래상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법학교수회장으로서 재임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직접 다른 로스쿨 원장이나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느낍니다. 로스쿨이 설립되던 2008년 당시 10,270명이던 대학교 법학전공 입학정원이 2023년에는 2,907명으로 급격히 줄었어요. 법학전공 학생 수가 줄다 보니 전국의 법학교수와 법학전공자들의 교육예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치주의는 현재 우리가 채택하는 민주주의가 다수의 독재로 흐르는 것을 제약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매커니즘입니다. 이러한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 사고양식(legal mind)을 국민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법적 사고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줄어드는 문제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로스쿨은 법적 사고를 기를 겨를 없이 변호사시험에 치중한 채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로스쿨 원장에게 들은 사례 하나를 이야기할게요. 학기 초에 학생이 교수를 찾아와, 학생 몇 명을 데리고 올 테니 변호사시험 대비 자습을 하기 위해 수업일수를 한 달로 줄여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법학 교육 없이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학점을 거래하는 듯한 분위기를 들으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현재의 로스쿨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로스쿨 커리큘럼도 비판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기에 따라서는 서울대학교의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보다 시간

강사 1인당 평균 학생 수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관련 과목을 제외하고 나면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학점이 워낙 적다 보니 학생 다섯 명 미만을 데리고 가르치는 수업의 수가 과도하게 많습니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을 공부하는 과정도 2주 미만을 투자해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으로 변질된 상황입니다. 기초법학 수강을 늘리고 선택과목 이수제를 도입해 커리큘럼을 개정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를 마치시기 전까지 해내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크게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로스쿨 커리큘럼을 제도적으로 개정하는 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는 인가주의가 아닌 요건을 갖춘 경우 로스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준칙주의와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화하는 자격주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교육지원법의 적용 범위를 초중고교에서 대학교 이상까지로 확대하고, 한국법학교수회의 법적 지위를 더 단단히 하는 법령개정에 힘쓰고 싶습니다.

서울법대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은 법률가로서 있는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처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규칙인 법은 때로는 공백을 가지고 있고, 불확정적이며, 서로 모순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legal decision-making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법학을 반드시 제대로 배워놓아야 합니다. 소위 “시장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에만 경도되지 않고, 공적 가치에 관심을 두고 법률가의 소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가며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배지에 학생기자

여유를 갖고 긴 호흡으로 멀리 가기



이재민 교수

이재민 교수가 제9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1992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10년간 외교부에서 근무하며 조약, 통상, 분쟁 등 영역에서 국제법 업무에 관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국제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2001년 미국의 국제 분쟁 전문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정부 기관과 민간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법과 국제 분쟁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2004년부터 교수로서 국제법 연구와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 1월 그가 쓴 『지배의 법칙』이 출간됐다. 그는 저서에서 1648년 시작된 근대 국제법 체제가 현재 대변혁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미래 세대들은 지금을 새로운 국제 체제의 출발점으로 그 성격을 규명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특히 그는 이러한 변혁의 시기에 젊은 법조인들이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더불어 장차 국제법과 국제 분쟁 관련 실무로 진출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강조한다.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기회를 찾고 발전시키기 위한 출발점은 일단 ‘법조인’으로서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그에게 현 원장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묻자, 그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학업을 이어가 법조인으로서 자격을 구비하고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충실히 돕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만큼 그는 학생들과 가장 열정적으로 소통하

는 교수이기도 하다. 그는 학생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늘 수첩을 꺼낸다. 그 학생의 이름과 관심 사항을 기억하고 다음번 만날 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다. 그 이후 학생들과 마주치면 이름을 부르며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넨다. 학생들의 신망도 두텁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향한 그의 애정 담긴 조언과 걱정 어린 당부를 아래에 담았다.

“자신을 채찍질하고 다그치는 것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 능력이 뛰어납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인지 스스로와의 경쟁에 지나치게 힘을 쏟기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자책하고 후회한다든지 말이죠. 허나 달리를 생각해 보면, 온 힘을 다해 정신없이 뛰면 200m도 가기 어렵습니다. 반면 힘을 빼고 호흡을 맞추어 가면 수십 킬로도 완주합니다. 물론 가끔은 오버페이스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겠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유를 갖고 리듬에 맞춰 호흡을 느끼며 뛰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하며 결국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 법대에 대한 사회의 기대를 의식하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적인 영역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는 늘 최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해야겠죠. 더 공부하고 더 경쟁하여 성공하고 출세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각자 선택한 분야에서 공공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여러분이 사회의 공적인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역시 서울법대는 다르구나’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모두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아마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많은 바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공동체를 위해 조금 더 양보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심을 높여 가기를 바랍니다. 로스쿨에 다니는 동안에는 학교 구성원으로서 우리 학교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서로 돕고, 졸업 이후 여러 기관과 조직에 소속되면 그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전한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생각과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훈 학생기자

16기 원로원(SENATUS) 인터뷰



16기 양현정(중앙 앞줄), 이동엽 학생(우측 뒷줄)

서울대학교 로스쿨에는 각 기수마다 30대 이상 학생들의 친목 모임인 ‘원로원(SENATUS)’이 있다. 원로원은 입학 평균 연령이 20대 중반인 로스쿨 내에서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학우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밀하게 소통하기 위한 교류의 장이다. 그 시작이 몇 기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최근 5개 기수 내에는 전부 원로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로스쿨에 입학한 16기의 경우 신입생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로원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풍문을 듣고, 원로원 모임을 이끄는 간사들을 만나 보았다. 로스쿨 15기 선배이지만 원로원보다 다소 연소자인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도 친절하고 격의 없이 성심성의껏 임해 준 원로원의 따뜻한 분위기에 폭 빠져드는 시간이었다.

어쩌다 ‘원로원(SENATUS)’?

이들의 작명에는 로마 시대 황제에게 조언을 해주던 장로회의 명칭인 ‘원로원’을 차용한 유머 감각이 돋보인다. 16기 원로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현정 학생과 간사 이동엽 학생은 만학도들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선배들의 애환과 재치가 담긴 이름이라고 생각한라며 미소를 띠었다. ‘원로원’은 기수별로 모임을 가져왔는데, 인원이 적어 운영되지 않은 해도 있었다고 한다. 이번 16기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원로’ 학생들이 유난히 많이 입학한 덕에,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모임을 이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 기쁘다는 소회를 들을 수 있었다. 원로원은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입학 시 30대이던 참여 기준을 재학 중 30대로 완화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모임이 되고자 했음을 밝혔다. 한편 방학을 맞이하며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원로원에도 지도교수가 생겼다는 점이라고 한다. 이 덕에 원로원은 지난 7월 지도교수인 이성범 교수와 즐거운 저녁 식사 자리를 갖기도 했다.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만 정해져 있는 모임

원로원 활동은 공식 직제나 프로그램이 없기에 원로들의 아이디

어를 제안자와 함께 그때그때 컨텐츠로 만들어 왔다. 이들은 3월 개강 파티, 15기·16기 합동 원로원 모임, 4월 중간고사 쫓파티, 5월 놀이동산 야유회 등 지난 한 학기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차곡차곡 친목을 다져 온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지난 학기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활동은 ‘밥로원(정기 밥조)’과 ‘미라클 모닝(출석 스터디)’이었다고. 밥로원 프로그램에서는 희망자 신청을 받아 답소를 나누며 학식을 먹고 교내를 산책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또한, 아침형과 올빼미형 원로들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된 출석 스터디를 통해 학생의 본분도 잃지 않고자 했다는 재치 있는 답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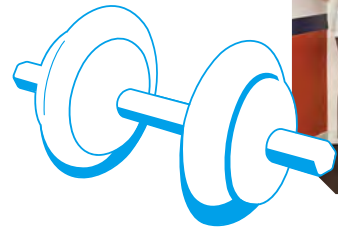
나아가 8월 말에는 16기 이유진, 김영탁 학생의 주도하에 계곡으로의 여름 엠티가 예정되어 있다. 이를 준비하며 16기 홍제현 학생이 직접 디자인한 원로원 로고를 넣은 티셔츠도 제작 중이다. 방중에도 마음 맞는 원로들이 합심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하고, 고액의 벌금이 걸린 지옥의 여름 스터디를 운영하는 등 학업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웃음을 남겼다.

원로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16기 원로원은 ‘낭만주의자’들의 심터를 지향한다. 익숙한 자리에서 안정을 찾아가던 중 이뤄온 것들을 내려두고 로스쿨 입학이라는 새로운 꿈에 도전한 데에는 깊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으리라 생각된다. 양현정, 이동엽 학생은 그만큼 각자가 꿈꾸는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원로원이라고 본다. 기존의 동료나 친구들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된 만큼 외로워지기 쉬운 새로운 여정에서, 서로의 용기 있는 선택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든든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고자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이들은 ‘참여도 이탈도 자유로운’ 원로원은 항상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학업 부담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를 함께 꾸려갈 원로들은 언제나 환영받는다.

법학전문대학원 김민제 학생기자

체력이 법력, 헬로(Heal-Law) 인터뷰



15기 권혜준 학생 (좌측에서 네 번째)

‘헬로’는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서울대 로스쿨 내 생활건강 동아리이다. 동아리 이름 헬로(Heal-Law)도 이러한 목표를 담아 Health와 Law를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헬로의 회장으로서, 운동을 ‘가장 오래 즐겨왔고, 또 앞으로도 이어갈 취미’라고 소개하는 15기 권혜준 학생을 만나 보았다.

헬로와 함께한 로스쿨 생활

평소 운동을 즐겨하는 편이었던 권혜준 학생은 로스쿨 입학 후 공부 시간이 길어지며 더욱 운동 습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는 신입생 대상 프로그램인 프리로(Pre-Law) 당시 진행되었던 동아리 소개를 통해 헬로를 처음 알게 되고, 운동을 즐기는 학우들을 만나 함께 운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입했다고 한다.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운동의 필요성을 실감하면서도, 운동을 해결되지 않는 과업 혹은 끝없이 미루어지는 숙제처럼 여긴다. 이를 의식한 헬로는 회원들이 운동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돕는데 집중하고 있다. 헬로의 주요 활동으로는 크로스핏, 등산, 클라이밍, 요가 등 새로운 운동을 함께 체험해 보는 단체운동 세션과 ‘챌린저스’ 앱을 이용한 운동 목표 설정 및 인증 프로그램이 있다.

운동 인증 챌린지는 비대면으로 자유롭게 진행되지만, 서로의 인증 사진을 보는 것 자체로 동기부여도 되고 함께 운동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단체운동 세션은 혼자라면 시도해 보지 않을 법한 운동을 함께 체험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권혜준 학생은 평상시에는 헬스를 주로 하지만 여유가 될 때는 수영이나 필라테스도 병행하며, 여행을 가면 서핑을 즐긴

다. 헬로와 함께해 온 로스쿨 생활의 활력소,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때로는 당연한 일상이고, 때로는 특별한 액티비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운동을 통해 가지는 유대감

권혜준 학생이 속한 15기 8조에는 유독 운동과 헬로에 관심이 큰 원우들이 많았는데, 이에 함께 헬로의 운영을 이어가 보자는 의견이 나와 자연스럽게 회장을 맡게 되었다. 로스쿨의 학업과 바쁜 일상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 자신을 챙기는 데 소홀해지기 쉬운데, 권혜준 학생은 헬로를 통해 생활 속 소소한 재미를 찾고 다른 학우들과 운동이라는 매개를 중심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다.

회원 간의 유대감에 더해, 지도교수인 김종보 교수는 몸소 꾸준한 운동의 필요성을 보여주며 헬로 활동 전반에 관해 응원을 아끼지 않는 열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전에는 헬로 임원진에게 단백질이 가득한 식사를 지원하기도 한 바, 이들은 인터뷰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였다.

근육을 잃어가는 당신에게

“흔히 헬스는 고독한 운동이라고들 하지만, 함께 하는 것의 시너지 역시 분명 크다고 생각합니다. 헬로에 가입해서 함께 맛있는 프로틴 음료 마시며 운동해 보는 건 어떨까요?” 권혜준 학생의 에너지 가득한 권유를 통해 자극을 얻었다면, 돌아오는 계절에 야말로 미루어 두었던 운동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법학전문대학원 김민제 학생기자

합창단 (Spero Spera) 공연 준비일지



15기 오예슬 학생 (첫째 줄 좌측에서 두 번째)

8월 30일 금요일 저녁, 서울대학교 로스쿨 합창단 Spero Spera의 9번째 정기공연이 진행된다. 합창단 단장으로서 연습을 이끌고 있는 15기 오예슬 학생은 멋진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과정이 구성원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했으면 한다는 소망을 밝히며 공연을 향한 여정을 공유해 주었다.

로스쿨 합창단 단장이 되기까지

학부 4학년 때 처음 합창단에 가입해서 1년 동안 즐겁게 활동했던 오예슬 학생은 학부 졸업 후에는 활동을 이어 나가기 힘들 것 같아 아쉬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스쿨 입학 즈음에 로스쿨에도 합창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입학식에서 그 공연까지 본 이후에는 당장 가입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주변 친구들에게 열심히 홍보해서 함께 가입한 기억을 되짚어 보는 모습에서 이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듯이, 적극적인 합창단 활동 끝에 자원해서 단장이 된 오예슬 학생의 마음은 Spero Spera를 향한 ‘애정’으로 가득하다. ‘누가 잘 해주겠지’하고 지켜보기보다는 합창단을 ‘좋아하는 만큼’ 책임감을 가졌다고 한다. 무엇보다 그에게 합창단은 좋은 사람들과 오손도손 지내는 소중한 곳이기에 잘 지켜나가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

합창단 단장으로서 Spero Spera를 어떤 동아리로 꾸려나가고 싶다고 생각해 왔는지 질문하자, 오예슬 학생은 역시 ‘구성원들이 애정을 가질 수 있는 동아리’로 꾸려나가고 싶다고 답변했다. 그는 합창단에서의 경험이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라고, 삭막한 로스쿨 생활에서 마음을 촉촉하게 해주는 곳이 되길 바란다. 인터뷰 막간에도 깨알같이 공연을 홍보하고 미래의 단원 모집을 위해 음치 박치도 환영한다고 재차 밝히는 밝은 모습에서 이미 오예슬 학생의 목표는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로스쿨 생활 속에서 합창 공연을 준비한다는 것

오예슬 학생은 구성원의 책임감이 있어야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기 중에는 거의 활동이 없고 모든 활동은 방학 중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학업에 큰 부담은 가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물론 단장단은 공연 준비에 꽤 많은 시간을 쏟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2학년 여름 방학이라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덧붙여, 합창단 단장이 되면 지도교수인 이상원 교수의 사랑을, 부단장이 되면 애정을 받을 수 있다는 공식입장을 장난스럽게 표명하며 미래의 단장단 모집을 위한 밑밥을 깔아 두기도 했다. 이상원 교수는 합창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공연장 대관을 책임지고 있다. 덕분에 Spero Spera는 예술대학 콘서트홀에서 훌륭한 공연을 해 왔다.

Spero Spera, 합창의 특별함

오예슬 학생에 의하면 바쁜 로스쿨 생활 속에서도 큰 부담 없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노래하고, 공연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Spero Spera의 장점이자 특별함이며, 이것은 합창의 특별함이기도 하다. 합창에서는 누구 한 명이 아니라 전체가 주목받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과 긴장은 훨씬 줄어든다. 자신이 별로 한 것이 없게 느껴지는데도, 주어진 몫만 잘하면 모두의 목소리가 모여 결국 굉장한 하모니를 이룬다는 점에서 아주 가성비 좋고 뿌듯하다고.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뽐내고 싶은 사람이 아님에도 노래를 좋아하고 공연을 해보고 싶은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지라는 말이 설득력 가득하게 전해졌다.

끝으로 오예슬 학생은 단원들을 향한 감사와 애정을 표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합창인 만큼, 단원들 덕분에 합창단이 있다. 오예슬 학생의 마지막 몇 마디를 그대로 전한다. “바쁜 여름에도 부족한 단장을 따라 공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마지막까지 즐겁게, 뿌듯하게 잘 끝내봅시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김민제 학생기자

문학하는 법학도 서울법대 문학회 심난 인터뷰



15기 최동익, 14기 김인서 학생

논리적인 사고를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법학을 하는 이들에게 문학은 다소 요원한 이야기로 느껴지는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과 맞닿은 채로 법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있다. 서울법대 문학회 ‘심난’은 2019년에 만들어진 후로 함께 독서를 하고 방학마다 문집을 펴내며 따뜻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심난’의 회장 15기 최동익 학생과 부원 14기 김인서 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문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동익 | 대부분의 글은 드러난 것을 통해서만 그 내면의 의도를 유추할 수 있는 반면, 문학은 비교적 자유롭게 행간이나 구조를 통해 그 이면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좋아해요.

인서 | 로스쿨 밖의 사회에 관한 호기심과 애정을 놓고 싶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은 한 종류의 삶밖에 살지 못하는 게 아쉬울 때가 있는데,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다시금 상기하고 위로를 받고는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작가나 책을 소개해달라.

동익 | 최인호 작가를 좋아하고, 최근에는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장욱 작가의 작품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서 | 박완서의 <나목>이라는 작품을 좋아합니다. 결말이 따뜻하고 위로가 되어서 좋아해요.

법학을 공부하면서 문학작품을 손에 짚 여유를 찾기 어렵지는 않은가.

동익 |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취미에 비해 짧은 시

간 안에 짊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법학수업을 들으면서 문학과 연관된다고 느꼈던 과목이 있는지?

인서 | 형법 판례를 읽으면서 마치 추리소설의 한 단면을 읽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웃음) 짧은 사실관계 뒤에 숨겨진 당사자들의 마음이 그려질 때가 가끔 있어요.

법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문학을 하는 것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동익 | 문학작품을 읽는 것만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문학을 접해왔던 사람들은 작품을 읽는 것만으로 어렵지 않게 위로를 얻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느껴지고는 해요.

인서 | 조금 더 폭넓은 시야를 갖고 법을 공부할 수 있는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판례도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됨으로써 등장한 것이라보니 사람의 인생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삶을 문학작품으로 접하다보면, 조금이나마 더 넓어진 시야로 판결과 사건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난을 자랑해주세요.

동익 | 저희 동아리에 오시면 책값을 지원해드려서 원하시는 책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영화모임과 같은 소규모 모임도 진행되니 많이 와주세요!

법학전문대학원 배지에 학생기자

판례의 진면모를 함께 찾아서

사법학회 주최 제4회 판례평석 발표대회 우승팀 인터뷰



(좌측부터)16기 이준경 박민찬 이정민 정인희 권이혁 학생

16기 권이혁, 박민찬, 이정민, 이준경, 정인희 학생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법학회에서 주최한 제4회 ‘판례평석 발표대회’에서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을 분석해 우승을 차지했다. 첫 학기의 부담을 이겨내고 멋진 성과를 이룬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대상판결 선정 과정과 역할분담

이정민 | 학회에서 제시해주신 예시 판례 중 이해하기 쉽고 분석하기 좋은 주제를 선정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2023다244895 판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한 회의를 거듭하면서 보호의무와 지배관리의 관계를 중심으로 숙박업자의 책임을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권이혁 | 역할은 큰 주제를 중심으로 분담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숙박계약의 비교, 화재보험 관련 법률, 비교법적인 검토 등 주제를 중심으로 역할을 나누어 이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준비 과정의 어려움

박민찬 | 이미 웬만한 판결에 대한 교수님들의 탁월한 견해가 존재하다 보니 이와는 별개의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정인희 | 또 대상판결을 반박하고자 했던 처음의 의도와 달리, 대법원 판결을 검토할수록 판결에 수긍이 가고 그 뜻을 깨닫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견해를 수정해 가는 것도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이준경 | 임대차를 아직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았기에 내용을 파

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판결과 인용판례를 찾아보고, 관련 논문을 꼼꼼히 읽어 법리의 오류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판례평석 작성과정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

이준경 | 대상판결 검토에 가장 공을 들였고, 새롭고도 상식적인 시각을 도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장기숙박업자와 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비교하는 등 여러 가정적인 상황을 놓고 왜 특정 결론이 상식에 부합하는지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숙박업자의 ‘지배’에서 보호의무를 도출해 낸 하급심 판결과 달리, 대상판결은 역으로 보호의무와 공법적 의무라는 규범적 근거와 숙박업자의 점유를 근거로 숙박업자의 ‘지배’를 도출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 참가를 통해 깨달은 점

정인희, 박민찬 | 수업을 들으며 짧게 판례의 결론만 훑어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론을 공부하게 되기에 앞서 축적된 연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실감했습니다. 또 혼자만 판례를 읽고 끝나지 않고 함께 판례와 관련 연구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생각의 깊이가 확장되는 게 느껴져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민, 권이혁 | 판례평석 작성을 위해 수많은 상황을 가정하며 논의를 하면서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는 하나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대회 참가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지점들이 많기에, 큰 부담 없이 생산적이고 즐거운 5월을 보내고 싶은 17기 분들이 계시다면 대회 참가를 추천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배지에 학생기자

학내 문제가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15기 박성하 학생

학생회는 늘 이슈를 마주한다. 인터뷰 날에도 건의가 접수됐다. 집행부는 이날 새벽 네 시까지 비대면으로 회의했다. 열람실 지정 좌석수 증가에 관한 문제였다. 반년 넘게 학생회장으로 일하며 이런 일이 반복되니 피곤하고 예민할 법도 할 터이다. 그럼에도 학생회장은 ‘로스쿨생은 아침부터 밤까지 열람실에서 생활하는 만큼 어디에 배정되는지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라며 원우들의 입장을 먼저 헤아렸다. 본인이 가진 것들로 학생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노력한다는 15기 박성하 학생회장을 만났다.

학생회장으로 출마한 계기가 있는가. 회장으로서의 마음이 짐은 어떠한가.

학생회에 들어온 이유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어떤 사회나 집단이든 ‘원활히 굴러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역할이 존재한다. 제가 컴퓨터 관련 업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학생회 내에 정보 관련 부서가 존재한다고 하여 지원했다. 다만 학생회장의 자리에까지 오를 생각은 없었다. 뛰어난 친구들이 많았고 저보다 회장 직무를 잘 수행할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서이다. 스스로 참모로 일하는 것에 더 잘 어울린다고도 생각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추천과 지지를 해주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다. 지금도 열심히 도와주는 그분들께 감사하다.

학생회는 원우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가.

학생회 메일을 통한 익명 건의와 로스누(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실명 건의를 접수받고 있다. 건의가 들어오면 일단 전부 접수한다. 관련 부서와 회장단이 논의해서 처리하고 있다. 특정 부서에 국한된 건의가 아닌, 구성원 간 이해가 대립할 정도의 건의도 접수된다. 이는 각 부서의 부장과 회장으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논의한다. 회의체를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가동하며 이러한 건의와 이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계속 다듬고 있다.

이번 학생회는 원우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최근에 우리 학교 졸업앨범 공유폴더를 이용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됐던 이슈이다. 무엇보다도 앨범이 다른 범죄에 더 이상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문제를 인지하자마자 전에 사용됐던 드라이브나 공유폴더의 접근을 막았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기존 앨범사진 업로드 과정의 대안도 찾아야 했다. 별도 서버를 두고자 했으나 예산 문제에 직면했다. 예정되지 않은 지출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중 드라이브 링크의 기능을 본따서 접근을 제어했다. 사진을 관리하는 학생회와 업체, 그리고 본인 외에는 더 이상 본인이 업로드한 앨범 사진에 접근할 수 없다.

남은 반년의 임기 동안 학생회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다음 학기에도 큰 사업이 많이 남아 있다. 우선 ‘법대 한마당’이 예정되어 있다. 학생부원장님께서 흔쾌히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우리 법대 공동체에 있어 정통성이 있는, 의미가 큰 행사이니만큼 더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10월의 졸업앨범 촬영도 큰 행사이다. 앨범이 인쇄되어 원우들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업체와 소통하고 계약 이행 과정을 꼼꼼하게 검토하겠다. 내년의 새내기새로배움터 행사가 제 마지막 업무이다. 그때까지의 학생회 사업들을 무탈하게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학생회 집행부원은 20명이다. 결코 많은 인원이 아니다. 부서별 상시 업무에다 매년 학생회장단이 바뀌며 새로운 사업들이 더해진다. 학기마다 열리는 전대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준비도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 외에도 건의가 들어오면 담당 부서를 정해 처리해야 한다.

학생회가 다른 학내 단체와 구분되는 지점은 ‘긴장과 책임’이다. 같은 학생임에도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동시에 학생 사회를 위해 시간을 꽤 할애해야만 한다. 개별 건의나 전학대회에서의 질의, 에브리타임 등 익명 플랫폼으로 활동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니 긴장되고 지치지 않을 수 없다. 장학금과 같은 혜택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학생회는 주(週) 단위로 세워둔 사업 계획을 묵묵히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 기사를 학생회원들의 열정에 부친다.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훈 학생기자

신생 학회의 열정 성장기



15기 박정우 학생

스타트업법학회는 2022년 2학기에 설립된 신규 학회이다. 벤처나 스타트업, 리걸테크 등의 분야에 관심을 두고 변호사가 해당 영역에서 활약할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조직됐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연사 초청 세미나와 특강, 법무법인 탐방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며 학회는 짧은 시간에 성숙에 이르렀다.

학회는 스타트업을 배울 뿐 아니라 ‘스타트업’스럽기도 하다. 학회에는 스피커(Speaker)라는 자리가 있다. 스피커는 간단한 이슈 제기부터 세미나 발제까지 원하는 주제와 분량대로 모임을 계획할 수 있다. 정해진 틀보다는 자유롭게 즐거운 활동을 지향한다. ‘스타트업에 관해 말도 공부도 자유롭게 하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치로 학회를 이끄는 15기 박정우 학회장을 만났다.

학회 운영 과정에서 교수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다.

박상철 교수님께서 지도교수님으로서 설립을 도와주셨다. 선배들께 듣기로는 새로운 주제여서 그런지 교수님께서도 큰 흥미를 보이셨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교수님께서서는 우리 학회 활동을 계속 신경 써주신다. 이번 학기 초 ‘스타트업법학회 회원이라면 투자계약서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한다’라면서 점심에 특강을 진행해 주셨다. 교수님께서 지도하시는 또 다른 학회인 ‘인공지능법학회’와 같이 로펌 탐방을 다녀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시기도 했다.

이찬희 교수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 교수님께서서는 〈법조윤리〉 시간에 리걸테크 창업자분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는 등 관심이 많으시다. 교수님께서 연락을 이어주셔서 ‘케이스

노트’나 ‘로앤굿’ 등 리걸테크 분야 전문가들을 학회 연사 특강에 초빙할 수 있었다.

신생 학회임에도 그동안 다양한 연사들을 많이 초청했다.

유관 분야 전문가분들께 연락하며 스타트업이라는 주제가 꽤나 뜨겁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로스쿨에 ‘스타트업법학회’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흥미를 느끼고 우리에게 먼저 연락을 주신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를테면 우리 학회 특강을 흔쾌히 맡아주셨던 민명기 로앤굿 대표이사님께서 이후 학회 임원진들에게 연락을 주셨다. 대표이사님의 소개로 청년창업네트워크 프리즘멘토단과 함께 세미나 겸 네트워킹 행사인 ‘스타트업과 법률이 만나는 밤’을 진행했다.

회장님께서 최근에 관심을 두고 발표한 이슈는 무엇인가.

학회원으로서 처음 발제한 주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아이디어 침해 이슈였다. 2019년 말에 설립된 ‘알고케어’라는 건강관리 분야 신생기업이 있다. 해당 기업은 영양제 디스펜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투자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롯데헬스케어의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기술분쟁조정을 거쳐 마무리됐는데 이 사건을 조사하여 발표했다.

‘스타트업법’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학회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선배들께서 학회를 설립할 때는 ‘스타트업법’이라는 개념 아래에 포섭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지금의 임원진도 동의한다. 스타트업법학회는 ‘스타트업의 전 생애에 관련된 법률을 탐구하는 학회’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의 하에서 각 학회원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구체화하여 공부하고, 서로에게 말해주며 배우고 있다.

‘스타트업법’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각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관련 법령도 달라진다. 부정경쟁방지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은 대부분의 이슈에서 등장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학회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우리 학회는 스타트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배우고 나누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스타트업에 관해 잘 모르지만 알아가고 싶거나 혹은 창업의 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 원우분들이 새로이 함께해주신다면 더 좋은 학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훈 학생기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소 식

하버드대 아시아법학회(HALS)와 서울대 법전문 학생 간 교류 모임 개최

2024년 3월 11일(월) 오전 11시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암홀(17동 6층)에서 Harvard HALS와 우리 법전문 학생 대표단 간 교류 모임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전종의 부원장의 환영사, 신윤진 교수의 특강, 우리 법전문과 HALS 학생 간 토론, 점심 식사, 캠퍼스 투어로 이루어졌다.

HALS(Harvard Asia Law Society)는 하버드내 아시아법학회로, 아시아 지역 출신이거나 아시아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HALS는 1995년 설립된 이래 매년 아시아 각국의 로스쿨과 교류를 진행하며 2018년에는 우리 법전문을 방문한 바 있다.



강삼석 장학금 수여식 개최

2024년 3월 18일(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오크룸에서 강삼석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1학년에 재학 중인 이동욱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 전종의 교무부원장과 최준규 학생부원장의 진행 하에 김종보 원장이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주)마상소프트 강삼석 회장과 이지현 이사 부부는 장학증서 수여식과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본 장학금을 전달하고 장학생과 인사를 나누었다. 강삼석 대표이사는 게임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게임보국'을 실천하고 있으며, (주)마상소프트는 부산 사랑의열매에 1억 원을 기부하고 나눔 명문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1억 원을 쾌척하기도 했다.



일우재단,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상 첫 장학금 수여

2024년 3월 21일(목) 정오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김장리홀에서 '일우재단 장학금 수여식' 행사가 열렸다. 일우재단 이사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이 참여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4명에게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본 장학금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우재단의 첫 번째 장학금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김종보 원장은 일우재단의 기부에 감사의 뜻을 표함과 함께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의 뜻을 새길 것을 격려했다. 조현민 일우재단 이사는 교육계에 큰 애정을 가져온 일우재단의 연혁을 소개하며 장학생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쁜 마음을 전했다. 한진그룹 일우재단은 1991년 설립되어 '사람과 물자의 수송과 문화교류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일맥상통한다'는 철학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사관 개관식 개최

2024년 3월 25일(월) 정오 72동 서암법학관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사관' 개관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이 참석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김종보 원장의 축사, 역사관 자유관람, 점심식사로 이루어졌다. 2010년 5월 개관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사관'은 최종고 명예교수가 1993년 17동 4층에 설치한 귀중문서실을 기반으로 한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함께 귀중문서실 내 자료를 서암법학관으로 이전·확대 개편하면서 구 국산도서관 1층 위치에 마련된 해당 공간은 2023년 역사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한층 더 세련된 모습으로 재개관되었다. 대명루, 형법대전 등의 고문서부터 서울법대 학생운동을

기록한 자료 등이 전시된 서울법대 역사관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방문객들에게 역사의를 일깨워줄뿐만 아니라, 서울법대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귀중한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제학생지원센터, 서울법대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2024학년도 1학기 개강을 맞아 3월 27일 수요일 국제학생들을 환영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정오부터 17동 108호에서 개최되었으며,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이후 피자와 함께 학생들이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진행되었다. 외국 학교 학부생으로서 로스쿨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국제학생부터 박사과정 연구 펠로우 참석자까지, 다양한 국적과 경험이 한 데 모여 전공과목, 한국생활 등 폭넓은 소재로 이야기를 꽃피운 시간이었다.



2024년 봄맞이 점심

2024년 4월 2일(화) 정오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암관에서 '2024 봄맞이 점심' 행사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생, 교수진, 직원을 포함한 모든 법대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스탠딩 파티로 진행된 식사 자리에서는 많은 구성원이 자유롭게 자리를 오가며 담소를 나누었다. 김종보 원장은 "캠퍼스에 가득한 봄기운을 함께 즐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인사를 전하였다.



2024년 법학전문대학원 봄축제 'Law망' 열려

2024년 5월 2일(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앞 중앙광장과 15동 일대에서 봄 축제 'Law망:로스쿨의 낭만'이 개최되었다. 오랫동안 추억할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설로네킷 사진 부스가 김장리홀에 마련되었고, 15동 앞 광장에는 트램펄린, 단체줄넘기, 제기차기와 굴렁쇠 굴리기 등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탁구장에서는 탁구대회 결승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축제에 참여한 재학생들은 따뜻한 봄기운을 한껏 느끼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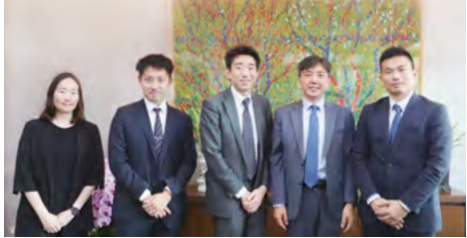
제9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재민 교수 취임

2024년 6월 1일(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교수가 제9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재민 교수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국제법 전공)를 취득했으며, 제26회 외무고등고시 합격 후 외교통상부와 국제분쟁 전문 로펌에서 근무했다. 신임 교무부원장에는 허성욱 교수(공법 전공), 신임 학생부원장에는 공두현 교수(법철학 전공)가 임명됐다. 제9대 원장단은 향후 2년의 임기동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이끌게 된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서울대 법전문 방문

2024년 6월 18일(화)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방문단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하였다. 본교 이재민 원장과 JBIC의 카와카미 나오(Nao KAWAKAMI) 연구부장은 국제 학술교류 가능성 등을 논의하였다. JBIC는 국제협력은행법에 따라 2012년 4월 1일 설립된 일본 정부산하 금융기관이다. 양 기관은 법적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관심 영역에서의 지식교환을 활발히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출판사 Springer Nature 부사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방문

2024년 7월 8일(월) 국제적으로 유명한 출판사인 Springer Nature 방문단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하였다. 부사장 Christina Brian, 편집실장 William Achauer, 편집자 Anushangi Weerakoon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과의 면담을 통해 출판협의를 진행하였다. Springer Nature는 작년 서울대학교와 3년간의 오픈액세스 전환계약을 체결하는 등 서울대학교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고, 해외에 본교 교수진이 집필한 우수 연구가 활발히 소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장단, 법대 동문 윤두식(법대 11회) 화백 접견

2024년 7월 8일(월) 동문 윤두식 화백(법대 11회)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하였다. 이재민 원장, 허성욱 부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 17동 내에 전시된 윤두식 작가의 작품 "법과 정의"를 살펴보고 작가로부터 작품에 담긴 법과 인간, 법과 사회, 법과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윤 화백이 서울법대에 기증한 "법과 정의"는 17동 4층 대회의실 정면에 걸려 있다. 서울법대 동문은 대한민국 사법,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윤 화백 등 동문이 역동적인 창작 정신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윤 화백은 지난 60여 년간 쉬지 않고 광범위한 동양화 장르·기법을 구사하며 900여 점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작품을 제작해 왔다. 윤 화백은 최근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가 주최하는 제43회 '올해의 최우수예술가상' 시상식에서 미술부문 최우수예술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하계 계절학기 'EU회사·증권법' 강좌 진행

법학전문대학원 하계 계절학기 'EU회사·증권법' 강좌가 2024년 7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1주간 진행되었다. 이번 강좌는 EU 디지털 핀테크와 EU 증권법의 전문가이자, 해당 주제에 관해 활발하게 학술논문, 저서를 발표하고 있는 독일 Hamburg 대학의 Dörte Poelzig 교수가 담당하였다. Dörte Poelzig 교수는 EU법과 유럽의 회사법 규정,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한 사례연구 등을 통해 유럽의 회사법 및 증권법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것을 수업 목적으로 설명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하계 계절학기 '국제형법(조직범죄)' 강좌 진행

법학전문대학원 하계 계절학기 '국제형법(조직범죄)' 강좌가 2024년 7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1주간 진행되었다. 이번 강좌는 OECD의 불법 무역 방지 TF의 일원이자 조직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한 유럽 실무 그룹의 일원으로서 해당 주제에 관한 다양한 출판물의 저자인 독일 Osnabrück 대학의 Arndt Sinn 교수가 담당하였고, 국제 형사법 및 국제 인권법의 영역에서 문제 되는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판례법 조사와 이론적 분석 양 측면에서 포괄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UC Irvine 한국법센터 방문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방문

2024년 7월 23일(화) UC Irvine 한국법센터(UCI Law School, Korea Law Center)의 Faculty Director인 Sung Eun Kim 교수와 Program Director인 Grace K. Lee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하였다. 작년 4월 UC Irvine 로스쿨 원장단이 본교를 방문한 후 후속 방문의 성격을 갖는 이날 방문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과 UC Irvine 로스쿨 방문단이 양교 학생 및 교원의 교류 확대를 통한 두 학교의 상호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두 학교는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시설 안전인증 심사 우수 등급 획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강의동이 교육시설 안전인증에서 우수시설로 인증받았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는 시설 안전을 비롯해 실내환경 안전, 실외환경 안전 등 3개 분야에서 49개 항목을 전문가가 검증해 안전성 수준에 맞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수행한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구성원들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로스쿨 부문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코퍼스’ 팀이 로스쿨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인공지능(AI)의 학습데이터 수집 과정부터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

의 권리 침해’라는 가상적 상황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총 37개 대학 31개팀(대학(원)부 23개팀, 법학전문대학원부 8개팀)이 참여해 예선을 거쳐, 6개팀(대학(원)부 3개팀, 법학전문대학원부 3개팀)이 본선에 진출하였고, 실제 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변론이 이루어졌다.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장려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최선우, 정다혜, 정재인, 이권영 학생으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작당모의’ 팀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13개 대학교, 13개 법학전문대학원, 3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총 37팀이 참여해 예선을 거쳐, 8개팀이 본선에 진출하였고,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청구인 대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으로 나뉘어 공방을 펼쳤다.

제1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승 및 최우수변론상

국제법 역량강화 및 국제소송에 대한 국내적 관심의 제고를 위하여 외교부가 주최하고 대한국제법학회가 주관하는 제1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김용준, 성규륜, 심여진, 우솔빈 학생으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전체우승하였고, 심여진 학생이 최우수변론상을 수상하였다. 우승팀의 학생들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팀원들과 함께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여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학교 수업에서 배운 개념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어 값진 경험이었다”라는 소회를 밝히며, 로스쿨 재학 중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방학 때에 원우들과 함께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였다.

제13회 전국 로스쿨 야구대회 첫 우승

2024년 8월 18일(일) 진행된 전국 로스쿨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야구부가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전국 로스쿨 총 13개 팀이 치열한 경기를 벌인 가운데 최종적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맞붙어 13대 0으로 우승에 이르렀다. 이로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야구부는 지난 제6회 로스쿨 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머쥔 이후 8년만에 첫 우승을 기록하였다. 우승팀 학생들은 “주자가 한 베이스씩 차근차근 나아가듯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울었던 노력

이 차곡차곡 쌓여 얻었던 첫 우승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밝히며, “팀을 위해 땀 흘려준 동기, 선배, 지도교수님께 빠짐없이 감사한다”라는 진심이 담긴 인사를 남겼다.

2023학년도 후기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개최

2024년 8월 29일(목) 오후 3시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84동) 주산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행사는 국민의례, 학사보고, 축사, 졸업생 답사, 학위수여, 교가제창, 폐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재민 원장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부단한 노력을 해온 졸업생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새로운 출발에 큰 계획과 꿈을 품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단지 지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공익에 헌신하는 사람이 될 것을 격려했다. 서울법대 강용현 동창회장 또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는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법학일반박사 20명, 법학전문박사 1명, 법학일반석사 13명을 포함하여 총 34명에 대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졌다.



연구소·센터 소식

공익법률센터, 제2회 SNULaw 공익법캠프 개최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는 7월 2일(화)부터 4일(목)까지 3일간 공익인권 현장과 법에 관심 있는 서울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공익인권 문제와 법이 맞닿아 있는 현장을 경험하게 하고, 법적 관점에서 인권 이슈를 다루어 볼 수 있는 제2회 SNULaw 공익법캠프를 개최했다. 캠프 1일차에는 인권교육과 공익인권을 주제로 특강을 진

행했다. 기본 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인권 감수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 등 학생들이 갖춰야 할 인권에 대한 자세를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어서 학생들은 로스쿨 임상교수의 지도로 아동인권, 장애인권, 노동인권으로 3개 분반을 나누어 교육과 현장방문 활동에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간 청취한 특강내용과 각 분반별 주제를 토대로 팀별 과제를 수행하였고, 조별 발표를 하며 공익법캠프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공익법률센터, 2024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성료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는 8월 5일(월)부터 16일(금)까지 2주간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공익인권 분야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실무적 역량을 키우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올해는 3일간의 공통프로그램과 7일간의 기관별 실무수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노동, 이주, 장애, 여성, 아동청소년, 환경, 정보인권, 수용자인권 등 10개 분야의 18개 협력기관이 함께하고, 전국 17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60명의 재학생이 참여했고 최종 58명의 학생이 수료하였다. 올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 공익진로를 경험하며 해당 진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단체 지도변호사님들의 지도와 피드백 덕분에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되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사건을 통해 법률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제2회 학술대회 및 SNU Law 연구자포럼 제4기 수료식 개최

서울법대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천경호 교수)는 2024년 8월 17일(토)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제2회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사 연구를 회고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도전을 당부하는 박병호 명예교수(서울대 법전원)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다. 박사후연구원 및 연구펠로우 세션에서는 박소민 박사후연구원이 “인권조약상 환경 관련 의무의 역외적용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승재 연구펠로우, 이유진 연구펠로우, 정익석 연구펠로우는 각자의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발표하였다. 연구자포럼 및 미래연구자포럼 세션에서는 SNU Law 연구자포럼 제4기 강윤구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와 여동근 판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가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SNU Law 미래연구자포럼 제2기 졸업생 유지수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와 김근호 공익법무관(법무부)이 재학 당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전문석사학위논문을 기반으로 발표하였다. 학술대회 종료 후 이어진 SNU Law 연구자포럼 제4기 수료식에서는 고명수 전문위원이 지난 1년간 진행된 프로그램을 되짚고 참여자들의 학술지 게재 현황을 소개하며, 수료를 축하함과 아울러 앞으로의 꾸준한 연구를 독려하였다.



법학연구소, 2024년 1학기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3월 13일에는 김재형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공법과 사법의 대화”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3월 20일에는 이종섭 교수(서울대 경영대학)가 “신용파생상품시장 활성화로 인한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변화—글로벌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3월 27일에는 황준식 국제법률국장(외교부)이 “외교현장에서 본 국제법과 다자주의”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4월 3일에는 김현섭 교수(서울대 철학과)가 “민주주의의 퇴행과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4월 24일에는 이두갑

교수(서울대 과학학과)가 “과학문화와 법의 충돌? 유전공학의 등장과 대학에서의 상업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5월 1일에는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사법개혁 관여 단상: 개혁 ABC & Know-how에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5월 8일에는 정진수 최고법무책임자(하이브)가 “글로벌 음악시장과 K-POP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5월 22일에는 이수형 대표이사(법률신문사)가 “법조 저널리즘의 과거, 현재, 문제점, 과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5월 29일에는 최정은 임상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임상법학 교육 현황과 개선점—노동클리닉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6월 5일에는 안철상 석좌교수(건국대 법전원)가 “법과 법률가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법학연구소, 제14회 서울대학 법학 신진예비연구자 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4년 3월 8일(금) 17동 서암홀에서 제14회 서울대학교 법학 신진예비연구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다룬 다섯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각 발표 후에는 지도교수의 논평과 더불어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범유경(박사과정 수료, 법철학) “메시지로서의 판결문: 법정 외 사법 의사소통에 관하여”
- 기노성(전문박사과정 수료, 금융규제) “금융 불공정행위 규제의 변화 방향—가산자산 시장에 대한 금융규제 확대”
- 금범수(박사, 지식재산권법) “방위력개선사업의 지식재산권 쟁점에 관한 연구”
- 김선화(박사과정, 법사회학) “사회적 관행과 법제도의 활용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민법 제781조의 자의 성과 본 규정을 중심으로”
- 정란(박사과정 수료, 헌법) “국회 입법절차에 대한 헌법적 검토—숙의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4회 아시아태평양사법학술회의 개최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허성욱 교수)는 2024년 7월 8일(월) 및 9일(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203호에서 제4회 아시아태평양사법학술회의(The 4th Asia Pacific Private Law Conference)를 개최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영걸 교수가 회의 전체의 사회를 진행하였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원장, 허성욱 부원장(본 연구소 소장)의 환영사와 권영준 대법관의 기조 연설로 시작하였다. 회의에는 서울대, 미국 Cornell 대, 일본 추오대, 미국 CINCINNATI대, 홍콩 City U, HKU, 싱가포르 NUS, 영국 Oxford, 중국 Renmin, 싱가포르 SMU 등 다수 대학의 교수들이 참석하였고, 여러 세션으로 나뉘어 민법, 상법, 경제법 등의 다양한 법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소 정준혁 부소장의 폐회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법이론연구센터, 정기 콜로키움 개최, 제4회 기초법학 논문상 공고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 교수)는 법학의 근본문제와 연관된 다양한 주제의 콜로키움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모두 세 차례의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3월에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김현섭 교수가 “사치세(luxury tax)는 정당한가?”를, 4월에는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김태현 교수가 “작은 자들의 민주주의”를, 6월에는 윤세리 법무법인(유) 율촌 명예대표변호사(사단법인 온울 이사장)가 “실무가 관점에서 본 법철학 비판과 제안-법철학 각론 또는 미시적 법철학의 검토”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법이론연구센터는 2학기 중에도 매월 콜로키움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법이론연구센터는 5월 ‘2024년 제4회 율

촌·온울 기초법학 논문상’을 공고하였다. <율촌·온울 기초법학 논문상>은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울이 후원하는 학술상이다. 올해는 특히 지원자들의 더욱 다양한 연구를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고전의 재해석’ 또는 ‘법의 새로운 흐름’이라는 예시 주제를 선정하였다. 대상 수상자(1편)와 우수상 수상자(2편)에게는 각각 상금 300만원과 100만원이 수여된다. 논문 제출 기간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이론연구센터로 문의하기 바란다.

법과경제연구센터, [SEOUL AI POLICY CONFERENCE- AI 거버넌스의 프런티어 이슈] 개최

법과경제연구센터(임용 센터장)는 8월 12일(월)과 13일(화) 양일에 걸쳐 서울 페럼타워에서 『SEOUL AI POLICY CONFERENCE 2024 - AI 거버넌스의 프런티어 이슈』를 공동주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의 최전선에서 다뤄지고 있는 프런티어 이슈들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12일에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축사, ‘AI 정렬의 프런티어 이슈’라는 주제로 오픈AI의 제이슨 권 최고전략임원(CSO)과의 특별대담을 진행하였고, AI 거버넌스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AI 표준에 대해 MS의 Jason Matusow 기업표준 최고관리자가 특별강연, 네트워크 정책 분야의 석학인 Christopher S. Yoo 교수(펜실베이니아대)가 ‘AI 거버넌스 모델의 진화’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둘째 날인 13일에는 프라이버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Daniel J. Solove 교수(조지워싱턴대)가 ‘프라이버시와 AI 규제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적으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AI와 저작권 보호 연구를 선도하는 Pamela Samuelson 교수(UC 버클리대)가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조우’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조연설을 하였다. 그밖에 형사집행·보건의료·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영역에서의 AI 표준 정립, AI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동향, AI와 시장 독점의 문제, AI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의 접근, AI 시대에 위협받고 있는 프라이버시의 보호 방안, 생성형 AI와 저작권 보호의 문제, AI 기반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방안 등 AI 거버넌스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 50여명의 국내외 최고 전문가로부터 최신 연구와 논의를 들어볼 수 있는 10개의 세부 세션이 마련되었다.



공익산업법센터, 제95회 학술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024년 6월 14일 더플라자에서 ‘생성형 AI시대의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윤주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용 교수(건국대 법전원)가 발표를 맡고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전원, 센터장)의 사회로, 이희정 교수(고려대 법전원), 김병필 교수(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김태오 교수(창원대 법학과), 채성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영탁 실장(SKT), 이진규 이사(네이버), 양창삼 국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 참석하여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금융법센터, 서울대-동경대 공동주최 컨퍼런스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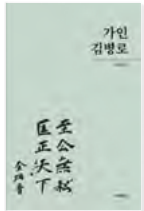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는 2024년 8월 27일 동경대 로스쿨과 제17회 정례세미나를 우천관에서 개최하였다. 양국의 회사법과 금융법의 최근 이슈를 주제로 토모요 마츠이 교수(동경대 로스쿨)와 노혁준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발표를 맡고 그 외 히데무사 이이다 교수(동경대 로스쿨), 타카히토 카토 교수(동경대 로스쿨), 김건식 명예교수(서울대), 송옥렬 교수, 노혁준 교수, 천경훈 교수, 정준혁 교수, 이정수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가 참석하여 주제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릴레이 도서 추천

릴레이 도서 추천은 법대 구성원들이 고민하면서, 때로는 휴식하면서 읽을만한 책을 여러 교수들이 차례로 추천하는 특집입니다.

한인섭 교수



가인 김병로

김병로는 한국 사법 및 법제의 초석을 놓은 중추적 인물이다. 그는 일제하에는 항일변론을 펼쳤고, 일제말기엔 대쪽 절개를 지켜낸 지사였다. 해방 후엔 초대 대법원장으로 사법부 독립을확립했고, 기본법률을 편찬한 책임자였다. 청렴강직한 공직자이자 헌법과 민주주의의 수호자의 소임을 다했다. 저자는 10여년에 걸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법률가 김병로의 모습을 복원했다. 이 책은 <김병로평전:항일변호사로부터 한국 사법의 정초자로>라는 제목으로 일본어로 번역되기도 했다.

한인섭 | 박영사 | 2017



법률가들

해방 전후하여 첫 법조인 직의 형성 과정에서는 우리 현대사만큼 복잡다단한 내력이 숨어 있다. 일제하의 고등문관시험, 변호사시험도 있고, 해방 직후엔 부족한 법조인을 채우기 위한 여러 입직 경로가 있었다. 저자는 치밀한 고증을 거쳐 각 경로를 추적하고, 분단과 전쟁의 쓰나미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규명한다. 그럼으로써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한국 법조의 특성의 연원을 찾아낸다. 어떤 경로에서 출발했든 간에 법조인으로서의 자세와 활동이 궁극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흥미진진한 서술방식도 일품이다.

김두식 | 참비 | 2018



인권변론 한 시대

인권이 유린당하던 군사독재 시대엔 사회정의와 인권실현의 가치는 더욱 절실했지만, 법조인들이 충분히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탄압받고 수난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인권변론에 헌신했던 “인권변호사”들의 존재가 빛난다. 그 대표 격에 해당하는 홍성우 변호사는 변론자료를 서울대에 제공하고, 그 자료정리를 마친 뒤 한인섭과의 장기 대담을 통해 인권변호의 전모를 드러내고자 했다. 현대를 살아가는 법조인들에게도 법조인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할 것이다.

홍성우, 한인섭 | 정인문화사 | 2011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조영래는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변호사로서 인권변론에 헌신했다. 나아가 그는 여성차별, 환경피해, 집단소송의 공익변론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했다. 그의 글은 절차탁마를 거친 명문으로 이름이 높다. 43세로 이른 죽음을 맞았지만, 그의 글과 변론문의 가치는 오늘날까지 울림을 준다. 현재 대한변협에는 조영래홀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조영래상이, 서울대에는 조영래홀이 조성되어 있을 만큼, 법률가들의 귀감이 되어 있다. 조영래에 대한 다른 책자와 함께 읽기를 바란다.

조영래(조영래를추모하는모임 위임) | 참비 | 1991

SNU Law 人 캠페인 안내

SNU Law 人 캠페인은 매월 1만 원(1구좌)으로 서울법대를 후원하는 정기후원 캠페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서울법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SNU Law 人 기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사회공헌기금** - 공적마인드를 갖춘 법률가 및 사회적 리더의 자격을 갖춘 서울법대 人 양성
- 교육장학기금**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서울법대 人 양성
- 학술연구** - 미래지향적인 법학 연구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자로서 서울법대 人 양성
- 일반기금** - 서울법대 교육 및 인프라 구축

• SNU Law 人에게 드리는 혜택

- 세 제 혜택**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네 이 밍 예 우**
서울법대 홈페이지, 정의의 종 등에 기부자 명단 게재
- SNU Law Family 머그컵 증정**
1만 원(1구좌) 이상의 정기후원을 약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SNU Law Family 머그컵 증정

• SNU Law 人 캠페인 참여방법

- 온라인 기부페이지(신용카드, 계좌이체, CMS 신청가능)
 - <http://secure.donus.org/snulaw>
 -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연결 됩니다.



- 전화·이메일
 - 전화. 02.880.2448
 - 이메일. lawgiving@snu.ac.kr
 - 카카오톡. [snulawfund](https://open.kakao.com/o/snulawfund)

Next Decade 기금 (발전기금) 안내

서울법대의 미래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약정 문의

세제 혜택

• 전화·이메일

전화·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 방문

방문해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전화. 02.880.2448

팩스 . 02.889.7196

이메일. lawgiving@snu.ac.kr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2동 615호

• 개인기부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 공제)

• 법인기부자

당해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세제혜택 비교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기부 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지정기부금에 비해 더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구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내용	사립학교, 국가지방단체,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등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공제한도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의 50%	소득금액의 30%	소득금액의 10%
해당기관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여타 기관	

법 학 발 전 재 단 및 발 전 기 금 출 연 현 황

2024. 3. 1. — 2024. 8. 31.

이범재	1,000,000	2024.03.07	신혜주	50,000	2024.03.08	김세연	300,000	2024.03.15
김국태	10,000	2024.03.08	박진호	10,000	2024.03.08	박혜원	100,000	2024.03.15
이지영	10,000	2024.03.08	김지수	10,000	2024.03.08	김민형	400,000	2024.03.15
김연각	10,000	2024.03.08	김다연	30,000	2024.03.08	김효준	10,000	2024.03.15
정철호	10,000	2024.03.08	박은정	10,000	2024.03.08	신동일	70,000	2024.03.15
김정민	10,000	2024.03.08	박상록	10,000	2024.03.08	홍성혜	10,000	2024.03.15
강윤구	10,000	2024.03.08	이윤진	10,000	2024.03.08	한화생명보험(주)	9,000,000	2024.03.15
이종준	10,000	2024.03.08	이의영	30,000	2024.03.11	한화솔루션(주)	18,000,000	2024.03.15
윤아현	10,000	2024.03.08	한화손해보험(주)	9,000,000	2024.03.12	한화토탈 주식회사	9,000,000	2024.03.15
석소현	10,000	2024.03.08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9,000,000	2024.03.13	(주)한화건설	9,000,000	2024.03.15
이창규	10,000	2024.03.08	한화비전 주식회사	9,000,000	2024.03.13	이경준	100,000	2024.03.20
유석호	50,000	2024.03.08	한화투자증권	9,000,000	2024.03.14	전일호	10,000	2024.03.25
이현선	50,000	2024.03.08	한화시스템(주)	9,000,000	2024.03.14	최지석	10,000	2024.03.25
오테옥	100,000	2024.03.08	봉옥	300,000	2024.03.15	유홍수	100,000	2024.03.25

김하영	50,000	2024.03.25	오테옥	100,000	2024.05.08	전일호	10,000	2024.06.25
방윤섭	100,000	2024.03.25	신혜주	50,000	2024.05.08	최지석	10,000	2024.06.25
김국태	10,000	2024.04.08	박진호	10,000	2024.05.08	김하영	50,000	2024.06.25
이지영	10,000	2024.04.08	김지수	10,000	2024.05.08	방윤섭	10,000	2024.06.25
김연각	10,000	2024.04.08	김다연	30,000	2024.05.08	허영만	10,000,000	2024.06.28
정철호	10,000	2024.04.08	박은정	10,000	2024.05.08	김국태	10,000	2024.07.08
김정민	10,000	2024.04.08	박상록	10,000	2024.05.08	이지영	10,000	2024.07.08
강윤구	10,000	2024.04.08	송종의	20,000,000	2024.05.08	김연각	10,000	2024.07.08
이종준	10,000	2024.04.08	이의영	30,000	2024.05.10	정철호	10,000	2024.07.08
윤아현	10,000	2024.04.08	신동일	70,000	2024.05.14	김정민	10,000	2024.07.08
석소현	10,000	2024.04.08	김효준	10,000	2024.05.14	강윤구	10,000	2024.07.08
이창규	10,000	2024.04.08	홍성혜	10,000	2024.05.14	이종준	10,000	2024.07.08
유석호	50,000	2024.04.08	이경준	100,000	2024.05.20	윤아현	10,000	2024.07.08
이현선	50,000	2024.04.08	유홍수	100,000	2024.05.27	석소현	10,000	2024.07.08
오테옥	100,000	2024.04.08	전일호	10,000	2024.05.27	이창규	10,000	2024.07.08
신혜주	50,000	2024.04.08	최지석	10,000	2024.05.27	유석호	50,000	2024.07.08
박진호	10,000	2024.04.08	김하영	50,000	2024.05.27	이현선	50,000	2024.07.08
김지수	10,000	2024.04.08	방윤섭	100,000	2024.05.27	오테옥	100,000	2024.07.08
김다연	30,000	2024.04.08	김국태	10,000	2024.06.08	신혜주	50,000	2024.07.08
박은정	10,000	2024.04.08	이지영	10,000	2024.06.08	박진호	10,000	2024.07.08
박상록	10,000	2024.04.08	김연각	10,000	2024.06.08	김지수	10,000	2024.07.08
이의영	30,000	2024.04.11	정철호	10,000	2024.06.08	김다연	30,000	2024.07.08
신동일	70,000	2024.04.15	김정민	10,000	2024.06.08	박은정	10,000	2024.07.08
김효준	10,000	2024.04.15	강윤구	10,000	2024.06.08	박상록	10,000	2024.07.08
홍성혜	10,000	2024.04.15	이종준	10,000	2024.06.08	이의영	30,000	2024.07.10
이경준	100,000	2024.04.22	윤아현	10,000	2024.06.08	신동일	70,000	2024.07.14
유홍수	100,000	2024.04.25	석소현	10,000	2024.06.08	김효준	10,000	2024.07.14
전일호	10,000	2024.04.25	이창규	10,000	2024.06.08	홍성혜	10,000	2024.07.14
최지석	10,000	2024.04.25	유석호	50,000	2024.06.08	이경준	100,000	2024.07.22
김하영	50,000	2024.04.25	이현선	50,000	2024.06.08	유홍수	100,000	2024.07.25
방윤섭	100,000	2024.04.25	오테옥	100,000	2024.06.08	전일호	10,000	2024.07.25
김국태	10,000	2024.05.08	신혜주	50,000	2024.06.08	최지석	10,000	2024.07.25
이지영	10,000	2024.05.08	박진호	10,000	2024.06.08	김하영	50,000	2024.07.25
김연각	10,000	2024.05.08	김지수	10,000	2024.06.08	방윤섭	10,000	2024.07.25
정철호	10,000	2024.05.08	김다연	30,000	2024.06.08	백숙종	1,000,000	2024.08.01
김정민	10,000	2024.05.08	박은정	10,000	2024.06.08	재단법인 나은	25,000,000	2024.08.05
강윤구	10,000	2024.05.08	박상록	10,000	2024.06.08	김국태	10,000	2024.08.05
이종준	10,000	2024.05.08	이의영	30,000	2024.06.10	이지영	10,000	2024.08.05
윤아현	10,000	2024.05.08	신동일	70,000	2024.06.14	김연각	10,000	2024.08.05
석소현	10,000	2024.05.08	김효준	10,000	2024.06.14	정철호	10,000	2024.08.05
이창규	10,000	2024.05.08	홍성혜	10,000	2024.06.14	김정민	10,000	2024.08.05
유석호	50,000	2024.05.08	이경준	100,000	2024.06.20	강윤구	10,000	2024.08.05
이현선	50,000	2024.05.08	유홍수	100,000	2024.06.25	이종준	10,000	2024.08.05

윤아현	10,000	2024.08.05	박상록	10,000	2024.08.05	전일호	10,000	2024.08.26
석소현	10,000	2024.08.05	(재)홍진기법률연구재단	32,244,300	2024.08.09	최지석	10,000	2024.08.26
이창규	10,000	2024.08.05	신동일	70,000	2024.08.12	김하영	50,000	2024.08.26
유석호	50,000	2024.08.05	김효준	10,000	2024.08.12	방윤섭	10,000	2024.08.26
이현선	50,000	2024.08.05	홍성혜	10,000	2024.08.12	한화비전 주식회사	14,000,000	2024.08.27
오택욱	100,000	2024.08.05	이의영	30,000	2024.08.12	(주)한화건설	14,000,000	2024.08.29
박진호	10,000	2024.08.05	김효준	10,000	2024.08.20			
김지수	10,000	2024.08.05	이경준	100,000	2024.08.20			
김다연	30,000	2024.08.05	한화손해보험(주)	14,000,000	2024.08.23			
박은정	10,000	2024.08.05	유홍수	100,000	2024.08.26			

* 기부정보는 기부자의 익명약정 요청 및 신청서가 미접수된 경우 해당 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예 우 안 내

기부금액에 따라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서 제공하는 예우 프로그램과 서울법대의 특별 예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50억 원	10억 원	5억 원	1억 원	5천만 원	1천만 원	1백만 원
기념품 및 간행물	총장 명의 감사패, 원장 명의 감사패	●	●	●	●	●	●	감사장
	기념품(본부, 법대), 간행물(본부, 법대), 달력, 생일카드	●	●	●	●	●	●	●
관악 명예 동문 특별초청	입학식, 개교기념식	●	●	-	-	-	-	-
	총장실 초청 약정식 및 감사패	●	●	●	●	-	-	-
	캠퍼스투어, 장학금 수여식	●	●	●	●	-	-	-
	기부자 초청 음악회, 전시회	●	●	●	●	●	●	-
	법대 행사 초청	●	●	●	-	-	-	-
	홍상	●	-	-	-	-	-	-
	부조	●	●	-	-	-	-	-
	기부자 리포트(본부, 법대)	●	●	●	●	●	-	-
	법대 명예의 전당(17동 1층) 명예 보존, 행정관 명예의 전당, 연구공원 명예의 전당(1억원 이상)	●	●	●	●	●	●	-
	교내 주요 행사 초청	●	●	●	●	●	-	-
	총장 공관 만찬 초청	●	-	-	-	-	-	-
	관악캠퍼스 무료주차	●	●	●	●	-	-	-
학교시설 이용편의	미술관, 박물관, 규장각 관람	●	●	●	●	●	●	-
	호암교수회관 및 서울대 기념품 할인	●	●	●	●	●	●	-
	중앙도서관 본관 이용	●	●	●	●	●	●	●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	●	●	●	●	●	●	기한
	법학도서관 이용	●	●	●	●	●	●	●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입학추천권	●	●	●	●	●	-	-
	건강검진 주선 및 진료예약	평생	평생	기한	기한	-	-	-
	의전서비스	평생	10년	기한	기한	-	-	-
서울대병원 이용편의	근조기	●	●	●	●	●	●	-

SNU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7530
Fax. 02-889-7196

정의의 종 40호
<http://law.snu.ac.kr>